공기업, 이전지역 인재 채용 늘린다

나주 이전 사학연금공단 4.2%→25%로

韓電 지역대학에 추천권 추가 배부키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이 이전 예정지역 출신의 채용을 확대한다. 이들 기관 본사의 지방이전은 2011년까지 완료된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방이전이 예정된 57개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해당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키로 하고 관련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기관중 35개 기관은 채용목표제를 통해 해당지역 출신의 채용규모를 최근 3년간 평균 8.0%에서 내년까지 13.2%로 높이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이전지역 출신 채용목표는 30%로 올해의 10.1%에 비해 3배이상에 이른다. 정보사회진흥원은 10.6%에서 28%로, 사학연금공단은 4.2%에서 25%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9.3%에서 15%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9%에서 10%로, 한국관광공사는 1.1%에서 7%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3%에서 10%로 각각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농수산물유통공사·전기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은 가점제를 통해 이전지역 출신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스공사는 해당지역 출신을 인턴으로 받아들여 채용하고 한국전력은 해당지역 대학에 추천권을 추가 배부하기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이런 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본사의 지방이전 이후에는 이런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해당지역 출신의 입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이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권역은 ▲광주·전남 ▲강원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전북 ▲충북 ▲제주 등으로 크게 나뉜다.

광주·전남권역 출신으로 분류되려면 이 지역에서 최종 학력을 마쳐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 확대계획

구 분	기 관 명	개선 내용	이행 시기
채용 목표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현행) 2.5%→(목표) 10%	'07
	한국농촌공사	(현행) 10.4%→(목표) 12%	'0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현행) 4.2%→(목표) 25%	'07
가점제	전력거래소, 농수산물유통공사		'08
기타	한국전력공사	추천전형시 해당지역 대학에 추천권 추가 배부	'07
	전파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결원시 우선 채용	결원시
계획 수립중	문화콘텐츠진흥원		-

꿩대신 닭? 김장철 배추·무 값 고공행진에 알타리무 등 대체품목 판매 급증

최근 배추와 무 가격이 치솟으면서 총각무(알타리무)나 열무, 얼갈이 배추 등 대체 김치재료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세계마트와 일부 가맹점포를 제외한 86개 점포의 대체 김치재료 판매동향을 집계한 결과 총각무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3%, 매출은 66.3%나 늘었다.

제철인 여름에 주로 많이 팔리는 열무 판매량도 47.3%, 매출은 94.6% 증가했다.

특히 예년보다 2주 가량 일찍 출하되기 시작한 갓 판매량이 급증했다. 작년에는 423단이 팔리는 데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10배가 넘는 5천212단이 팔렸고 매출도 20배 이상 늘었다.

롯데마트에서는 10월 한달간 54개 전 점포에서 팔린 열무가 작년보다 42.5%, 총각무는 44.9% 증가했고 매출액도 각각 109.7%, 63.7% 신장했다. 겉절이로 주로 먹는 얼갈이배추도 인기가 높아 판매량은 45.1%, 매출은 88.2% 올랐다고 롯데마트는 덧붙였다. 홈플러스에서도 같은 기간 62개 점포에서 얼갈이배추 매출이 24.7%, 갓은 11%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재배면적 축소와 생육기 기상악화로 배추김치 주 재료인 배추와 무값이 크게 오르자 총각무나 열무로 김장 때까지 먹을 분량의 김치만 소량 담가 먹으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대체 김치재료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아시아나, 무안공항 개항 기념 소년소녀 가장 초청 비행

아시아나항공(대표·강주안)이 8일 무안공항 개항을 기념해 전남지역의 소년소녀 가장 105명을 초청, 무상비행을 실시했다.

'희망의 비행기'로 명명된 이번 무상비행은 우리나라 서남지역 국제항공의 축으로 자리잡으려는 무안공항의 희망을 전남지역 소년소녀 가장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무안공항 개항행사를 주관하는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전남도청과의 협조아래 기획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러시아 황실 찻잔

광주신세계가 8일 백화점 1층에 메종·드· 신세계 컬렉션을 열고, 러시아 황실찻잔 등 세계의 아름다운 생활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11일까지의 컬렉션을 통해 신세계는 이들 생활용품을 15% 할인가에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 소상공인 창업 강좌

광주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하남소상공인지원센터는 19~ 21일 소점포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내용은 소자본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의 허와 실 ▲고객관리 기법 및 응대요령 ▲소자본 창업절차 및 자금조달 ▲마케팅 전략 ▲2007년 소자본 트랜드 ▲소비자 욕구 및 취향 분석 등으로 짜여져 모두 15시간 강의가 실시된다. 수강신청이나 창업강좌 안내는 광주하남소상공인지원센터(062-954-2084)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사료작물 재배 면적 66% 확대

2015년까지 24만ha로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청보리 등 사료용 곡물 재배를 늘리는 반면 할당관세 물량은 줄여 사료 수입을 억제한다.

농림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질 조사료 생산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보리 및 쌀 수요 감소로 늘어난 휴경지를 활용, 작년말 현재 14만5천ha에 불과한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오는 2015년까지 24만ha로 66% 늘릴 계획이다.

특히 값은 저렴하지만 영양면에서 수입 사료와 대등한 청보리의 경우 재배 면적이 9천ha에서 10만ha로 거의 10배가 된다.

또 정부는 사료 곡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농가에 청보리·귀리 등 종자 구입비를 일정 부분 대주고, 사료 생산에 참여하는 지역조합은 농협으로부터 무이자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료작물 육성 차원에서 청보리·귀리·호밀 등 우수 맥류품종 시범포가 전국 200곳에 조성된다.

사료 자급률은 지난 2003년 84.0%에서 지난해 82.1%로 떨어졌고, 2005년 1t당 184달러 수준이던 수입 사료의 평균 가격도 올해 8월 현재 243달러로 뛰었다. /연합뉴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전남 22% '꼴찌'

전국 인구대비 30% 돌파 광주 29%·서울 35.6%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전체 인구대비 처음으로 30% 선을 돌파한 가운데 전남의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구 대비 보급률이 전월 29.97%에 비해 0.14%포인트가 오른 30.1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기준 보급률이 전체의 28.96%를 기록한 데 이어 8개월 연속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6%, 인천 31.8%, 경기 31.0% 등의 순으로 30%대를 넘어섰다. 이어 대전과 울산이 나란히 29.9%, 광주 29.1%, 대구 29.0%, 부산 28.6%로 집계돼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이 1위부터 8위까지를 모두 차지했다.

전남은 22%에 그쳐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초고속인터넷 보급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밖에 충북 28.0%, 강원 27.9%, 경남 27.2%, 제주 27.0%, 충남 26.7%, 전북 25.8%, 경북 25.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 대비 보급률 역시 전달 89.7%에 비해 0.4%포인트 오른 90.1%로 2007년도 통계청 기준이 적용된 뒤 처음으로 90% 선을 회복했다.

전남은 가구 대비 보급률에서도 59.5%라는 저조한 수치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서울이 107.8%, 경기가 102.6%, 인천이 101.1% 등으로 100%를 넘어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반면 경북(71.1%), 전북(73.7%), 충남(78.4%), 강원 (78.7%) 등 상당수도 지역의 가구 대비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80% 이하로 나타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한백 세븐샤시 담양에 생산공장 설립

PVC 샤시 전문업체인 (주)한백 세븐샤시(대표 양형수)가 최근 담양군 수북면에 생산공장을 설립했다. 수도권과 제주도에 이미 대리점을 개설한 한백 세븐샤시는 공장설립과 함께 광주와 전남·북에 대리점을 열어 소비자들의 구입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양형수 대표는 "현재 지역내 대리점 개설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PVC 샤시 압출공장 준공으로 물류비 및 재고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61)383-6789.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상의 회장 보선 박흥석-이승기 2파전

광주상공회의 후임회장 후보등록 마감시한인 8일까지 박흥석(63) 광주상의 회장직무대행과 이승기(57) 상임의원 등 2명이 등록해 경선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12일 후임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상공의원 42명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후임회장으로 선출하게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김병원 남평농협 조합장 농업인의 날 철탑산업 훈장

농림부는 9일 서울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에서 농민단체장, 농협조합장 등 농민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18명의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

전남지역에서는 김병원(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이 철탑산업훈장을 남상도(장성) 한마음공동체 대표가 산업포장을 최영환(영광) 쌀전업농연합회 부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상한다.

한편 9일부터 3일 동안 같은 장소 앞에 마련된 야외광장에서는 '농촌사랑 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소속 21개 단체가 인절미 만들기, 압화(押花) 체험, 짚공예 전시, 장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